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현실

전도홍 | 관동대 중앙도서관장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획기적인 교육개혁 없이는 미래도 불확실할 것이다. 우리 나라 대학교육이 제도적 모순, 사회적 편견, 교육자의 의식 및 학생들의 사고방식 등에 과히 혁명적이라 할만한 변화가 있을 때 만이 바로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제도적 모순으로는 정부의 획일적이고 단일한 교육정책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이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대학들, 어떤 학교는 사실 학원보다도 교육환경이 미흡한 곳도 있는데 정부의 인·허가의 남발로 대학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대학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신생 대학들도 있지만 여러 신생 대학들이 열악한 교육환경과 대학을 영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현상들로 인해 학문적 전통성을 잃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하

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방대학 지원율의 저조로 인하여 기존의 대학마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 대학 발전에 크게 저해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편견은 학부모, 기업체, 사회인 모두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전통성으로 인하여 학연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고, 이로 인해 소위 일류대학, 이류대학의 구분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단 하나의 목표는 일류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은 병들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한술 더 떠서 대학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수학능력시험에서 점수가 높은 학생들을 유치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교육환경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인성교육이 취약한 상태에서 오직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고득점을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친구들을 이겨야만 하는, 서로가 라이벌이 되고, 가족들은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시종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교육여건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무엇을 배우고 느끼겠는가?

또한 교육자의 의식도 자기 편의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는 생각이 든다. 프로젝트에 많이 동참하고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편수의 양에 따라서 교수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풍토가 되다 보니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토대는 상실되어 버렸다. 또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가다 보니 질적인 평가보다는 정량적인 평가에 의한 가치 판단들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우수한 연구결과가 나오며, 또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며 교육의 주체가 바로 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올바르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정책이 보다 건실한 연구 여건을 만드는 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고서 대학이 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은 여러 의미에서 수동적인 교육을 받아 왔다. 소위 일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그들이 선택된 위치에 있다는 잘못된 판단과 그렇지 못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열등의식에 사로 잡혀 의욕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이 가진 소질이 있으며, 그것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든 이들이 같은 교육환경에서 제각기 나름대로의 소질을 개발한다면 모두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심신이 혹사당했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는 쉬는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간단히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다. 중·고등학교 때는 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과 자립심을 키우고 남을 사랑하는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학생들의 숨은 소질을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학업에 임하게 하기 때문에 대학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만큼 받지 않고 있다. 반면에 대학에 가서는 학문에 전념하는 교육과정이 우리나라와는 정반대 현상이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참다운 학문의 탐구와 자기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인격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것이 곧 자기개발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

라서 학생들은 군중심리에 휘말리지 말고 스스로를 개발해 나가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교육환경 및 여건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격한 차이는 줄여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교육여건이 취약한 대학교일수록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어느 정도의 대학 평균화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사회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학교의 간판보다는 개인의 인성 및 자질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하도록 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경우 비록 지방대학이기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을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 유학을 보내 본 결과 성실하게 공부하여 석·박사 과정을 무난히 마치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면 어떤 주어진 업무라도 무난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는 학교의 일·이류를 따지지 말고 학생의 인품과 성실성에 채용 기준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정신적·육체적으로 혹사 당하고 있다. 조금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자녀들이 건전한 정신과 훌륭한 이상을 쌓을 수 있도록 가정교육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실현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 대학의 교수 수준은 어느 정도 평준화 되었다고 본다. 정부는 교수들이 학생들을 훌륭히 가르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문의 전통성을 중요시 해야 한다. 미국

의 예를 보면 순수과학을 하는 학생들과 학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문·사회분야의 학문과 순수과학분야의 학문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에 진출하여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분야에만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하는, 이러한 현상은 대학이 학문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기능을 키우는 학원으로 전략해 가는 모습 같아 안타깝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곳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의 필요성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및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대학이 들어서고 있으며, 여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교육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대학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한다.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어떤 분야의 학문이든 간에 우리 나라의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나, 기초가 없이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더 멀리 내다보며 학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

전도홍

오클리호마대 컴퓨터그래픽학과 졸업하고, 플로리다공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강원개발연구원 21세기 강원비전 과학기술분과 상임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관동대 중앙도서관장, 전자계산소장, 전산교육원장, 교무위원회 교무위원, 강원도 장기발전위원회 연구기획단 연구위원, 한국과학재단 핵심연구과제 논문평가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컴퓨터그래픽스, 멀티미디어, 신경망컴퓨터,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 분야이고, 주요 논문으로는 "Fuzzy ARTMAP을 이용한 패턴인식", "ECG Pateren Recognition Using LPG Coefficients and Fuzzu ARTMAP", "A Study on Signature Verification Using FFT Spectrum and Neural Networks", "신경망과 스펙트럼분석기를 이용한 패턴인식", "Hopfield신경망의 에너지 함수 분석에 대한연구"가 있다.